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	
<b>배 포 일</b>		2019. 5. 1. / (총 3매)		
종합계획 재원조달	과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2710
	담당자	박 정 우		044-202-2705
사무장병원 근절	과 장	오 창 현		044-202-2470
	팀 장	신 현 두		044-202-2473

**□ 5.1일자 건강보험공단 재정 적자,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 재원조달 방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**

(5.1일자 조선일보, ‘文 케어로 건보공단 4조, 탈 원전으로 한전 3조 이익 급감’  
중앙일보, ‘한전 1조, 건보 4조 적자... 정책에 멍든 공공기관’  
매일경제 ‘41조 재정확보 방안도 없이... 결국 ‘文 케어’ 강행’ 보도 등 관련)

**□ 설명 내용**

**1. “건강보험공단 ‘18년도 당기순이익 4조원 감소”에 대하여**

-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전년도 재무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경영 공시하고 있습니다.
- 이번에 경영공시된 ‘18년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결산 당기순이익 규모는 △3조8,954억 원으로,
  - 이는 건강보험 △3조2,571억원, 장기요양보험△6,472억원, 4대보험 통합징수 90억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.

- 동 수치는 「국가회계법」 규정에 따라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 규모로서
  - 통상 정부 예산 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의 적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 (건강보험 기준 '18년도 △1,778억원)

## 2. 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나 보완 장치 없이 강행하기로 했다”에 대하여

- 정부는 기존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1차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,
  - ▲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, ▲국고지원 지속 확대, ▲수입기반 확충, ▲불필요한 지출 및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(\*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음)
  -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('17.8) 당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'23년까지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.2%\* 수준으로 관리하고
    - \* 보험료율 인상률 평균 3.2% 수준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과거 10개년('07~'16) 평균 보험료율 인상 수준임
  -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\*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  - \* (국고지원 예산 증액 추이) '18년 약 3천억원, '19년도 약 7천억원 증액
  - 또한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자에 대한 억제\*,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\*\* 등 재정 누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

\* (요양병원) 일당 정액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,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

\*\* (사무장병원) 체납 처분 시 독촉 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 강화

-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\*과 분야(요양병원, 노인 의료비 등)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모니터링하고,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

\* CT·MRI, 초음파 검사, 고가 항암제, 추나 요법 등

- 한편, 사무장병원 불법 급여비가 지난 10년간 2조5천억원 규모라는 점과 관련하여, 사무장병원은 다른 부정수급과는 달리 적정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도 개설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전체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므로 환수금액 규모가 큰 측면이 있습니다.

- 이에 대해서는 '18.7월 사무장 처벌강화, 법인 운영요건 강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, 현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,

- '18.12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, 은닉재산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등 환수를 제고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.